

## 통합학급 상황에서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진로교육\*

이 종 호\*\*

전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고 은\*\*\*

전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

### 《 요 약 》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학급 상황에서의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의 현주소를 밝히는데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초등학교 통합학급 교사의 장애학생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진로교육 실태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서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2개의 초등학교에서 통합학급 담임교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 장애학생에게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진로교육 시작 시기에 대해서도 약 80%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라고 답하였다. 그에 반하여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진로상담에 있어서도 약 80%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통합교사의 특수교육과 진로교육 관련 연수는 진로교육 실시 여부 등에서 일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통합학급 교사의 진로교육 요구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 통합학급, 초등학교 장애학생, 진로교육

---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논문 일부를 수정 및 요약하였음.

\*\* 제 1저자

\*\*\* 교신저자 (eunko@chonnam.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진로교육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시대, 즉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직업의 세계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하게 복잡해짐에 따른 시대적 상황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진로교육이 개인의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에 기여한다고 보는 관점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아동기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진로발달이란 삶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발달과정이 아니라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걸쳐 최종적인 직업선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크고 작은 일련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발달과정을 말한다(정철영, 1997).

특수교육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에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기본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진로 및 직업교육은 중학교 학생부터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중·고등부에 편중되어 있어서 초등부에서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실행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초등부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을 감안하여 ‘실과’를 추가하여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거기에는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시기의 경험들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미래 직업생활을 준비하도록 조기에 도와야 한다는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장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 옮겨질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된다.

201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가운데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30%가 채 되지 않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를 모두 합치면 61,973명으로 70%를 초과한다(교육부, 2018). 전남지역만 하더라도 2018년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의 수는 551개이며 2,35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18). 문제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현주소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는 기본교육과정의 ‘실과’ 과목을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체로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시간제로 운영하여 통합학급의 국어, 수학 등의 도구교과 과목을 주로 수업하기 때문에 ‘실과’ 혹은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업시수가 편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진로 및 직업교육은 도구교과 위주로 수업을 하는 특수교사 보다는

통합학급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통합학급 교사가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는 통합학급 교사가 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현재 진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물론 거기에는 그들이 진로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가 함께 확인됨으로써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 장애학생의 진로교육 실태에 대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초등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62개의 초등학교 통합학급 교사 135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때 통합학급 교사란 최근 5년 이내에 통합학급 담임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5)

변인	구분	인원(명)	퍼센트
성별	남	79	58.5
	여	56	41.5
교육 경력	5년 이하	51	37.8
	6~10년	54	40.0
	11~15년	21	15.6
	16년 이상	9	6.7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음	56	41.5
	없음	79	58.5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135)

변인	구분	인원(명)	퍼센트
특수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음	36	26.7
	없음	99	73.3
통합학급 근무 당시 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유무	있음	117	86.7
	없음	18	13.3
통합학급 소속 학생의 장애유형	지적장애	80	59.3
	지체장애	29	21.5
	자폐성장애	14	10.4
	감각장애	1	0.7
	기타	11	8.1
계		135	100.0

## 2. 조사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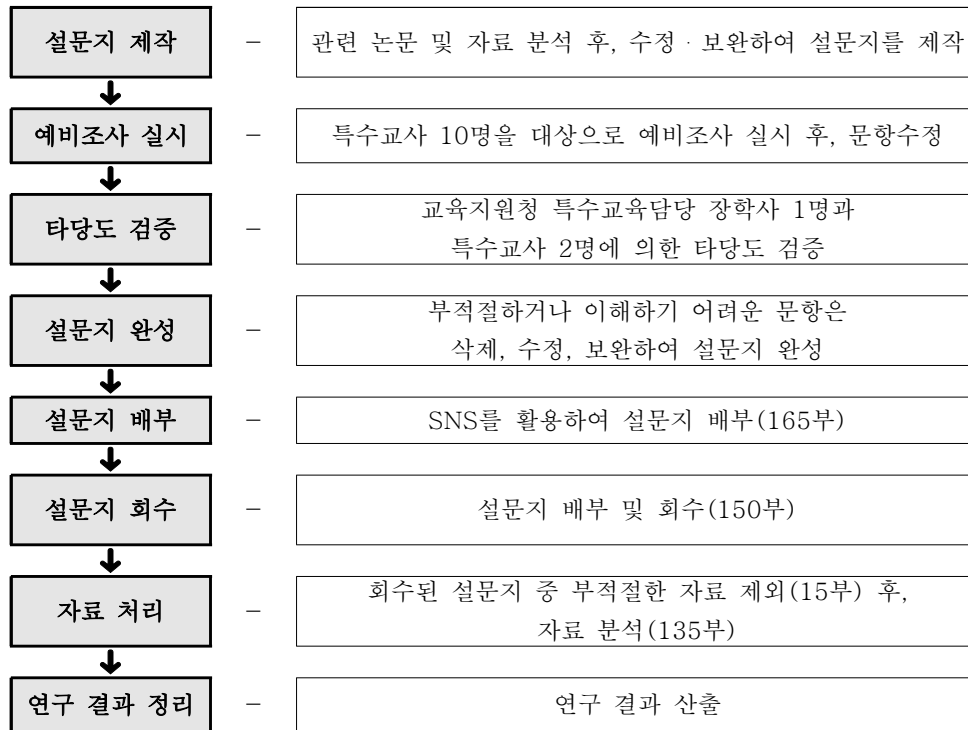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1) 일반적 특성 (2)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3) 진로교육의 실태 (4)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이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교사의 진로교육의 인식과 실태 그리고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의 요구는 진로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라는 점에 근거한다(장재성, 문성채, 이상봉, 2017; 이견남, 2014). 교사의 인식과 실태는 한국교육개발원(1982) 설문지를 재구성한 여은주(2014)의 설문지 일부를 재인용하였다. 평균을 산출할 수 있는 응답에 대해서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그렇다' 그리고 4점은 '매우 그렇다'로 배점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는 정주한과 한경근(2012)의 설문지를 재인용하였다. 연구자는 네 개 영역에 대해 총 23개의 문항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문항 타당도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1명과 특수교사 2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문항 내용이 중복되거나 통합교사가 응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삭제하도록 하였다. 최종 설문지 구성 내용 및 영역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내용

영역	내용	문항수	Cronbach's $\alpha$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	· 성별 · 교육경력 · 진로교육 관련 연수경험	· 특수교육 관련 연수경험 · 특수학습 설치 유무 · 지도 장애 영역	6	
진로교육 인식	· 진로교육의 필요성 · 장애학생을 위한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관심 · 장애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대한 관심 ·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의 시행 시기 · 장애학생에게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		5	.71
진로교육 실태	·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의 실시 정도 · 학부모와의 진로상담 빈도 · 진로교육을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활용 정도 · 진로교육을 위한 각종 심리검사 활용 정도 ·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관련 정보나 자료 구비 여부 · 장애학생 진로교육 시 어려운 점		6	.79
진로교육 개선방안	·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 진로교육 지도 시간 · 장애학생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 장애학생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자료 · 진로교육 연수 시 강조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 진로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		6	
계			23	.81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주 동안 실시하였다.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62개의 초등학교 통합학급 교사에게 SNS로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 발송은 구글(Google) 웹사이트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165명의 통합학급 교사에게 스마트폰을 통하여 설문지를 전송하였으며, 구글(Google)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회수된 150부(회수율 90%)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한 13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 4. 자료 분석 방법

초등 장애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 및 실태와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인 통합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 및 실태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장애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하위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학급 교사의 변인별 반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Likert 척도형인 8개 문항에 대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문항은 Chi-square( $\chi^2$ ) 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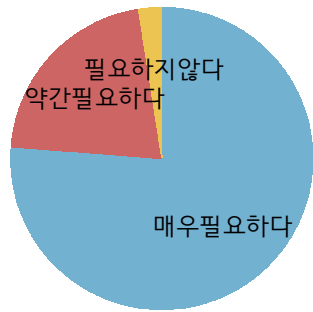
넷째, 장애학생 진로교육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하위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초등 장애학생 진로교육에 대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

##### 1) 초등 장애학생에게 진로교육은 필요한가?

진로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77.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를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유목화한다면 98.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통합학급 교사가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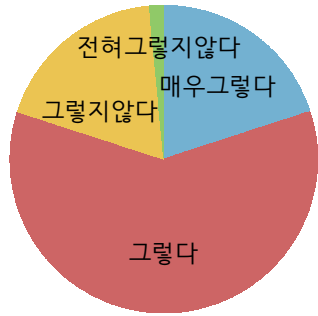
〈그림 2〉 진로교육 필요성

〈표 3〉 진로교육 필요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M (SD)
매우 필요하다	104	77.0	3.76 (.465)
약간 필요하다	29	21.5	
필요하지 않다	2	2.5	
계	135	100.0	

##### 2) 장애학생을 위한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초등 장애학생의 미래 직업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81명(60%)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27명(20%), ‘그렇지 않다’가 25명(18.5%), ‘전혀 그렇지 않다’ 2명(1.5%)으로 응답함으로써, 전체 교사의 80%가 장애학생의 직업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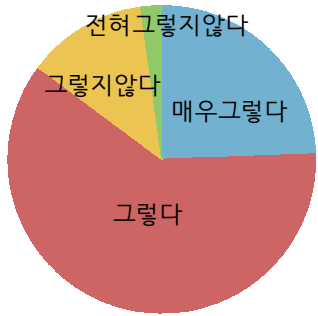
<그림 3> 직업세계에 대한 관심

<표 4> 직업세계에 대한 관심

구분	빈도 (명)	비율 (%)	M (SD)
매우 그렇다	27	20.0	2.99 (.669)
그렇다	81	60.0	
그렇지 않다	25	18.5	
전혀 그렇지 않다	2	1.5	
계	135	100.0	

3) 장애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장애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82명 (6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33명(24.4%), ‘그렇지 않다’가 17명(12.6%), ‘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85%가 장애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적성과 소질에 대한 관심

<표 5> 적성과 소질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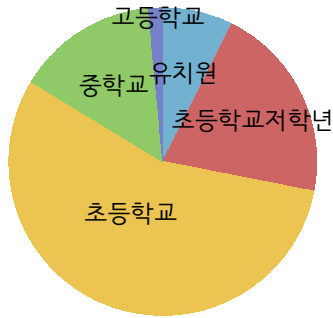
구분	빈도 (명)	비율 (%)	M (SD)
매우 그렇다	33	24.4	3.07 (.676)
그렇다	82	60.7	
그렇지 않다	17	12.6	
전혀 그렇지 않다	3	2.2	
계	135	100.0	

4) 장애학생 진로교육 시작 시기는 언제가 가장 바람직한가?

바람직한 진로교육 시작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초등학교’가 75명(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28명(20.7%)으로 전체 응답자 중 ‘초등학교’ 때 진로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103명(76.3%)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학교’



20명(14.8%), ‘유치원’ 10명(7.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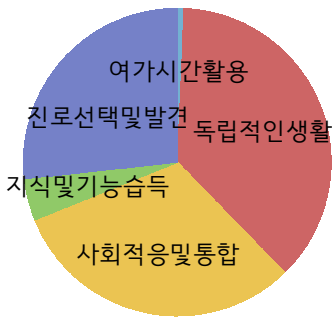
<그림 5> 진로교육 시작 시기

<표 6> 진로교육 시작 시기

구분	빈도 (명)	비율 (%)
유치원	10	7.4
초등학교 저학년	28	20.7
초등학교	75	55.6
중학교	20	14.8
고등학교	2	1.5
계	135	100.0

5) 장애학생에게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초등 장애학생에게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학령기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에 해당하는 응답이 50명(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적응 및 통합’이 42명(31.1%),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 및 발견’ 하기 36명(26.7%), ‘직업에 유용한 지식과 기초기능 습득’을 위함이 6명(4.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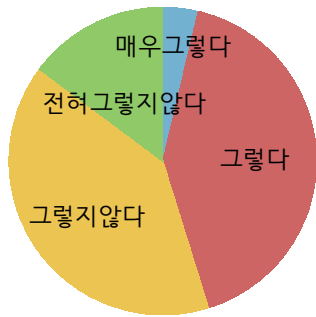
<표 7>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

구분	빈도 (명)	비율 (%)
여가 시간의 활용	1	0.7
학령기 이후 독립적인 생활	50	37.0
지역사회로부터 적응 및 통합	42	31.1
직업에 유용한 지식과 기초기능 습득	6	4.4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 및 발견	36	26.7
계	135	100.0

## 2. 초등 장애학생 진로교육 실태에 대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

### 1)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 문항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통합학급 교사는 ‘그렇다’ 56명(41.5%), ‘매우 그렇다’ 5명(3.7%)이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54명(40.0%), ‘전혀 그렇지 않다’ 20명(14.8%)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진로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통합학급 교사가 74명(54.8%)으로 실시하는 통합학급 교사 61명(45.2%)보다 많게 나타났다.



<그림 7> 진로교육 실시 여부

<표 8> 진로교육 실시 여부

구분	빈도 (명)	비율 (%)	M (SD)
매우 그렇다	5	3.7	2.34 (.774)
그렇다	56	41.5	
그렇지 않다	54	40.0	
전혀 그렇지 않다	20	14.8	
계	135	100.0	

변인별로 진로교육 실시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진로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과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통합학급 교사가 진로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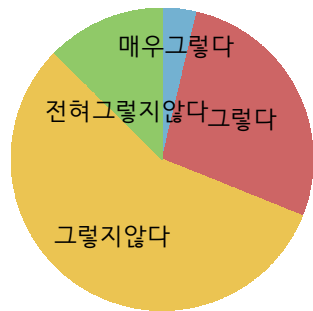
<표 9> 통합학급 교사의 특성별 진로교육 실시 여부 (n=135)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p
교육경력	5년 이하	51	2.39	.635	.220	.883
	6~10년	54	2.30	.838		
	11~15년	21	2.38	.865		
	16~20년	9	2.22	.972		
진로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56	2.50	.786	2.036	.044*
	없다	79	2.23	.750		
특수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36	2.61	.766	2.494	.014*
	없다	99	2.24	.757		
특수학급 설치 유무	있다	117	2.36	.782	.696	.487
	없다	18	2.22	.732		

\*p < .05

2) 장애학생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하는가?

장애학생의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별로 살펴보면 진로상담을 하고 있지 않은 ‘그렇지 않다’ 76명(56.3%), ‘전혀 그렇지 않다’ 17명(12.6%)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42명(31.1%) 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림 8> 진로상담 실시 여부

<표 10> 진로상담 실시 여부

구분	빈도 (명)	비율 (%)	M (SD)
매우 그렇다	5	3.7	2.22 (.709)
그렇다	37	27.4	
그렇지 않다	76	56.3	
전혀 그렇지 않다	17	12.6	
계	135	100.0	

또한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통합학급 교사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학부모 진로상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교육 관련 연수가 학부모와의 진로상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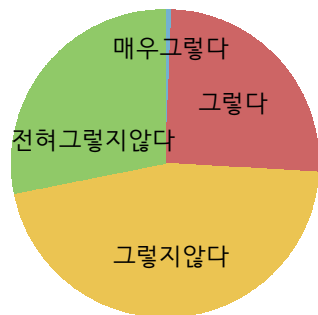
<표 11> 통합학급 교사의 특성별 진로상담 실시 여부 (n=135)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p
교육경력	5년 이하	51	2.25	.659	.123	.943
	6~10년	54	2.20	.737		
	11~15년	21	2.24	.625		
	16~20년	9	2.11	1.054		
진로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56	2.38	.728	2.111	.037*
	없다	79	2.11	.679		
특수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36	2.42	.692	1.942	.054
	없다	99	2.15	.705		
특수학급 설치 유무	있다	117	2.23	.674	.283	.78
	없다	18	2.17	.924		

\*p < .05

3) 장애학생 진로교육을 위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활용하는가?

초등 장애학생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사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활용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인 활용도는 평균값 1.99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응답 별로는 ‘그렇지 않다’ 62명(45.9%), ‘전혀 그렇지 않다’ 38명(28.1%), ‘그렇다’ 34명(25.2%), ‘매우 그렇다’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명(74.0%)이 진로교육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9>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활용

<표 12>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활용

구분	빈도 (명)	비율 (%)	M (SD)
매우 그렇다	1	0.7	1.99 (.753)
그렇다	34	25.2	
그렇지 않다	62	45.9	
전혀 그렇지 않다	38	28.1	
계	135	100.0	

<표 13>을 보면 진로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 변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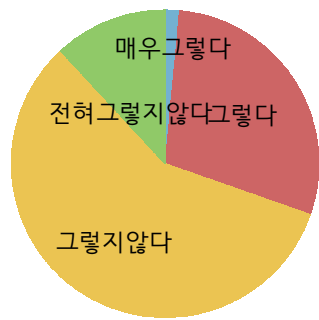
<표 13> 통합학급 교사의 특성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활용 (n=135)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p
교육경력	5년 이하	51	1.92	.717	1.845	.142
	6~10년	54	1.91	.784		
	11~15년	21	2.33	.730		
	16~20년	9	2.00	.707		
진로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56	2.25	.720	.590	.000***
	없다	79	1.80	.723		
특수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36	2.08	.732	.913	.363
	없다	99	1.95	.761		
특수학급 설치 유무	있다	117	1.97	.725	-4.25	.672
	없다	18	2.06	.938		

\*\*\*p < .001

4) 장애학생 진로교육을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를 활용하는가?

진로교육을 위한 심리검사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평균값 2.2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별로 살펴보면 심리검사를 활용하지 않는 ‘그렇지 않다’ 78명(57.8%), ‘전혀 그렇지 않다’ 16명(11.9%)으로 ‘그렇다’ 39명(28.9%), ‘매우 그렇다’ 2명(1.5%)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부로 유목화하면, 69.7%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활용에 있어서 70.0%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 심리검사 활용

<표 14> 심리검사 활용

구분	빈도 (명)	비율 (%)	M (SD)
매우 그렇다	2	1.5	2.20 (.656)
그렇다	39	28.9	
그렇지 않다	78	57.8	
전혀 그렇지 않다	16	11.9	
계	135	100.0	

마찬가지로 진로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 변인만이 심리검사 활용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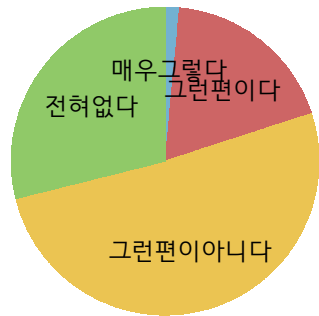
<표 15> 통합학급 교사의 특성별 심리검사 활용 (n=135)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p
교육경력	5년 이하	51	2.12	.653	1.273	.286
	6~10년	54	2.17	.666		
	11~15년	21	2.38	.669		
	16~20년	9	2.44	.527		
진로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56	2.41	.626	3.255	.001**
	없다	79	2.05	.638		
특수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36	2.31	.624	1.129	.261
	없다	99	2.16	.666		
특수학급 설치 유무	있다	117	2.18	.610	-.695	.495
	없다	18	2.33	.907		

\*\*p < .01

5) 장애학생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 및 자료 보유는 어떠한가?

<표 16>에서와 같이 평균값 1.93로 대다수 통합학급 교사들이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별로 살펴보면 ‘가지고 있지 않다’가 69명(51.1%),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39명(28.9%)으로 ‘조금 가지고 있다’ 25명(18.5%), ‘충분히 가지고 있다’ 2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80.0%가 진로 관련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1> 정보 및 자료 보유

<표 16> 정보 및 자료 보유

구분	빈도 (명)	비율 (%)	M (SD)
매우 그렇다	2	1.5	1.93 (.729)
그런 편이다	25	18.5	
그런 편이 아니다	69	51.1	
전혀 없다	39	28.9	
계	135	100.0	

정보 및 자료 보유에 있어서는 <표 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육 연수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통합학급 교사의 특성별 정보 및 자료 보유 (n=135)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p
교육경력	5년 이하	51	2.00	.800	.368	.776
	6~10년	54	1.87	.646		
	11~15년	21	1.86	.727		
	16~20년	9	2.00	.866		
진로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56	2.05	.724	1.725	.087
	없다	79	1.84	.724		
특수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36	2.17	.811	2.352	.02*
	없다	99	1.84	.681		
특수학급 설치 유무	있다	117	1.96	.736	1.276	.204
	없다	18	1.72	.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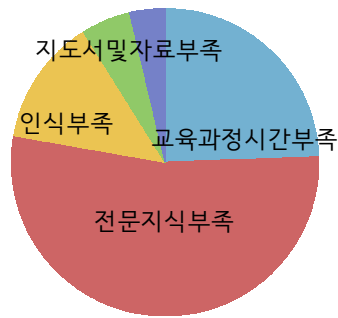
\*p < .05

6) 장애학생 진로교육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장애학생 진로교육 시 애로사항을 묻는 문항에 대해 72명(53.3%)은 '장애학생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답하였다. '교육과정 운영 시 시간 부족' 33명(24.4%), '진로교육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8명(13.3%), '진로교육 관련 지도서 및 자료 부족' 7명(5.2%), '학부모와 장애학생의 진로에 대한 호응 부족' 5명(3.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8> 진로교육 시 애로 사항

구분	빈도 (명)	비율 (%)
교육과정 운영 시 시간부족	33	24.4
장애학생 진로교육 전문 지식 부족	72	53.3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8	13.3
진로교육 관련 지도서 및 자료 부족	7	5.2
학부모와 장애학생의 진로에 대한 호응 부족	5	3.7
계	135	100.0



<그림 12> 진로교육 시 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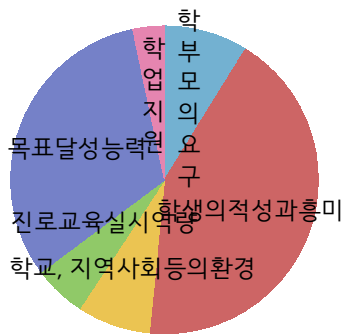
3. 초등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한 개선방안

진로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반면에 실제 진로교육의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통합학급 교사에게 진로교육에서 개선

6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4호)

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계획할 시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교사는 ‘학생의 적성과 흥미’ 115명(83.4%), ‘학생의 진로교육 목표달성 능력’ 86명(64.8%), ‘학부모의 요구’ 24명(18.2%),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환경’ 21명(15.4%), ‘담당교사 진로교육 실시 역량’ 15명(11.0%), ‘장애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 9명(7.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9> 진로교육 계획 시 고려사항 (중복응답: n=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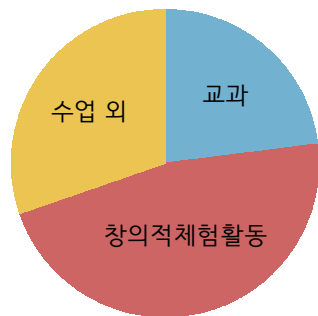


구분	빈도 (%)	비율 (%)
학부모의 요구	24	18.2
학생의 적성과 흥미	115	83.4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환경	21	15.4
담당교사 진로교육 실시 역량	15	11.0
학생의 진로교육 목표달성 능력	86	64.8
장애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	9	7.2
계	270	200.0

<그림 13> 진로교육 계획 시 고려사항

두 번째로는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실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서, 그에 대한 응답은 <표 20>와 같다. 응답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63명(45.7%), ‘수업 외 시간’ 41명(30.3%)으로 ‘대부분의 교과시간’ 31명(23.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0> 장애학생 진로교육 실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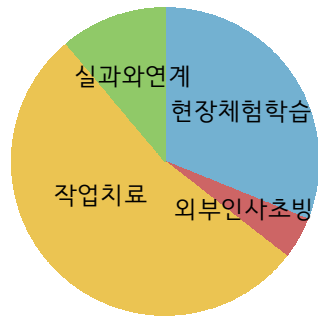


구분	빈도 (명)	비율 (%)
대부분의 교과시간	31	23.0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63	46.7
수업 외 시간	41	30.3
계	135	100.0

<그림 14> 장애학생 진로교육 실시 시간



세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진로교육 방법을 묻는 질문으로서 그에 대한 응답은 <표 21>와 같다. 응답별로 살펴보면 ‘직업 기술과 관련된 작업치료’가 72명(53.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현장체험 학습’ 42명(31.1%), ‘실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활동’ 15명(11.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외부 인사 초빙’에 응답한 비율은 6명(4.4%)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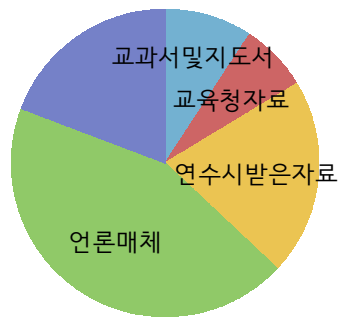


<표 21> 효과적인 진로교육 방법

구분	빈도 (명)	비율 (%)
현장체험 학습	42	31.1
외부 인사 초빙	6	4.4
직업 기술과 관련된 작업치료	72	53.3
실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활동	15	11.1
계	135	100.0

<그림 15> 효과적인 진로교육 방법

네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진로교육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에 대한 응답은 <표 22>과 같다. 응답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 텔레비전 등의 매체’가 56명(45.5%)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교육 연수 시 받은 자료’ 29명(21.5%), ‘진로교육과 관련된 문헌’ 27명(20.0%)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교과서 및 지도서’ 13명(9.6%), ‘교육청의 지도자료’ 10명(7.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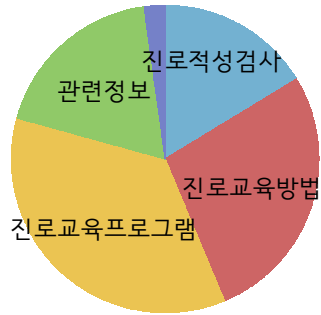
<표 22> 효과적인 진로교육 자료

구분	빈도 (명)	비율 (%)
교과서 및 지도서	13	9.6
교육청의 지도자료	10	7.4
진로교육 연수 시 받은 자료	29	21.5
인터넷, 신문, 텔레비전 등의 매체	56	45.5
진로교육과 관련된 문헌	27	20.0
계	135	100.0

<그림 16> 효과적인 진로교육 자료

다섯 번째로 진로교육 연수 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48명(35.6%)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교육의 방법’ 37명(27.4%), ‘진로교육 관련정보’ 25명(18.5%), ‘진로 적성검사’ 22명(16.3%), ‘진로교육의 개념 및 기초이론’ 3명(2.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7〉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표 23〉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구분	빈도 (명)	비율 (%)
진로 적성검사	22	16.3
진로교육의 방법	37	27.4
진로교육 프로그램	48	35.6
진로교육 관련정보	25	18.5
진로교육의 개념 및 기초이론	3	2.2
계	135	100.0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요구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 93명(68.7%),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92명(68.1%), ‘직업 현장 중심의 교육’ 75명(55.5%), ‘통합학급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62명(45.9%), ‘관리자, 동료교사, 지역사회인사 등 관계자 인식 개선’ 46명(33.9%), ‘특수교사 진로교육 지원’ 37명(27.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8〉 진로교육 요구사항

〈표 24〉 진로교육 요구사항 (중복응답: n=135)

구분	빈도 (명)	비율 (%)
통합학급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62	45.9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92	68.1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	93	68.7
관리자, 동료교사, 지역사회인사 등 관계자 인식 개선	46	33.9
직업 현장 중심의 교육	75	55.5
특수교사 진로교육 지원	37	27.3
계	405	300.0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 장애학생의 진로교육 현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의 연구 문제로 진행되었다. 통합학급 교사의 초등장애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통합학급에서의 초등장애학생의 진로교육 실태 그리고 통합학급 교사의 진로교육 관련 요구이다. 그에 대한 각각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반적으로 통합학급 교사는 초등 장애학생에게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95%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학생의 미래 직업 세계에 관심을 갖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80%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적성과 소질에 대한 관심 여부 질문에 대해서도 85.1%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진로교육 시작 시기에 있어서도 76.5%가 대부분 초등학교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통합학급 교사는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령기 이후 독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로부터 적응 및 통합’이 각각 37.0%와 31.1%로 나타났다고 하는 점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진로선택 및 발견’을 응답한 수는 36명(26.7%)에 불과하였으며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에 해당하는 ‘직업에 유용한 지식과 기초기능 습득’은 단 4명(4.4%)만이 응답하였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2012)가 밝힌 초등학교 진로교육 목표에서 기술한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그리고 진로디자인과 준비의 5개 세부목표와는 다른 관점으로 장애학생의 진로교육 필요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문제 2: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었던 것에 반하여 진로교육 실태는 전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적으로 진로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를 초과하였다. 이 결과는 실시방법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실제 학부모와의 진로상담은 68.9%가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활용도 70%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각종 심리검사 도구도 68.7%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정보 및 자료 보유에 대해서도 80%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진로교육 기반은 매우 부족한 것이다. 변인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교육경력과 특수학급 설치 유무는 모든 문항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특수교육과 진로관련 연수 경험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영향을 미쳤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활용과 심리검사 활용에 있어서는 진로관련 연수 변인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특수학급 설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모든 문항에서 관찰되지 않은 점인데, 이를 통합학급 교사가 특수교사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왜냐하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연구대상은 불과 18명에 불과하여 집단을 비교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진로교육 시 애로 사항을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0% 이상은 '전문지식의 부족'을 들었다. 이는 앞서 연구대상의 58.5%가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연구 경험이 없다고 한 보고와 진로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감안할 때 그 인과성이 예측되는 부분이다. 이는 진로교육 관련 연수가 갖는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시 시간 부족'은 33명(24.2%)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2009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배당함으로써 진로교육의 비중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통합학급 교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이다. 진로교육을 계획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를 묻는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학생의 적성과 흥미'(42.6%) 그리고 '학생의 진로 교육 목표달성 능력'이 31.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어느 시간을 이용한 진로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63명(46.7%), '수업 외 시간'이 41명(30.3%) 그리고 '교과시간'이 31명(23%)로 비교적 고루 응답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발달단계, 흥미, 소질 등의 요구와 교육적 필요 등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로교육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은 각 교과를 통한 직업에 대한 이해 또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예측이 허용된다면, 연구자는 '별도의 시간'이란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를 통한 진로지도일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장애학생에게 효과적인 진로교육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0% 이상은 '직업 기술과 관련된 작업치료'라고 응답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진로교육은 진로탐색이나 자아발견의 취지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직업교육과의 접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사 초빙에 대해서는 단지 6명(4.4%)이 효과적이라고 답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에는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직접적인 활동중심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진로교육 자료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문헌이나 자료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매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5.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앞서 진로교육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진로교육 연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교육의 방법, 진로교육 관련 정보, 진로 적성 검사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그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효율적인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통합학급 교사들은 특수교육 지원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및 통합학급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응답 간 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통합학급 교사는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특수교육과 진로교육 관련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이 정규 교과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은 진로발달 과정의 관점보다는 치료와 직업적 측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령과 인지발달을 고려한 진로발달 교육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장애학생은 통합의 당위성은 인정받았으나 실제적인 활동으로서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애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이라는 점에서(박영근, 윤형진, 2015) 본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통합학급 교사가 장애학생의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누가’ 그리고 ‘어떻게’ 라고 하는 실천적 측면에서는 많은 고심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자아인식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본적인 진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 상으로는 진로교육이 창의적 활동에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특수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학급 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전남지역의 통합학급 교사로 국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통합학급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가 없어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과 비교의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 측정에서 발생하는 응답의 신뢰성을 감안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와의 병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초등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08). **특수학교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3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울: 저자.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초등학교 진로교육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체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3). **교육기본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8). **특수교육통계**.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국립특수교육원
- 김가인 (2012).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강두봉, 이승민 (2017). 초등 진로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30(2), 1-26.
- 김충기 (1992).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배영사.
- 박대희, 박재국, 김혜리 (2009).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진로교육의 실태 및 교사의 인식. **특수 아동연구**, 11(2), 233-255.
- 박영근, 윤형진 (2015).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실행방안에 관한 교사인식. 54(3), 213-233
- 박은미 (2010).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 특수학교의 진로교육 실태와 교사인식에 관한 조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2001). **초등학교진로교육매뉴얼**.
- 심문희 (2009). 울산광역시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 개선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은주 (2014). 초등 지적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특수학교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영, 유애란 (2010). 천안·아산지역 특수학급의 진로 및 직업(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비교. **특수교육연구**, 17(2), 79-107.
- 이건남. (2014). **진로심리검사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한국실과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8, 151-152.
- 이정은 (2014). 초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실태 및 특수교사의 인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성, 문성채, 이상봉. (2017).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지역 일반고등학교 진로교육 실태 및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7(2), 83-100.
- 정철영 (1997). 진로지도의 의의와 실태. **교육개발**, 100, 28-31.
- 정철영 (2011).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과교육연구**, 17(4), 1-30.
- 조대훈, 이수미 (2012).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연구학교의 운영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1(1), 109-122.

- 차세진, 황순영 (2011). 특수학교 초등부 학생의 직업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특수교육저널**, 12(1), 27-48.
- 최세민 (2006).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진로지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9(2), 69-85.
- 한국진로교육학회 (2011).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한희주 (2006). 진로교육에 관한 지체부자유학교 초등부 교사 인식.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주 (2010).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 실태 및 특수교사의 인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Fives, C. J. (2008). Vocational assessment of second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 school psychologist. *Psychology in the schools*, 45(6), 508-522.
- Halpern, A. S. (1993). Quality of life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evaluating transition outcomes, *Exceptional Children*, 59(6), 486-498.
- Herr, E. L., & Cramer, S. H. (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 (5th ed)*. New York: HarperCollins.
- Tuckman, B. W. (1974). An age 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93-212.

## Career Education of Element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n Setting

Lee, Jong-H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 Eu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career educ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inclusive education setting. Therefore, the researcher examined the perception of the inclusive classroom teachers on the career education of elementary student with disabilities, actual condition and their demands comprehensively. As a survey study, this study performed the questionnaire survey with 135 inclusive classroom teachers having experience as inclusive class teacher in 62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Jeonnam.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nswer that the career education is needed for the element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occupied more than 90%, and 80% of them answered that the timing of starting the career education should be the kindergarten and the elementary school. In contrast, more than 50% answered that the career education is not performed, and approximately 80% answered that the career counseling is not performed, which means that the needs of career education are recognized but the education in the actual field is not sufficient.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the special education and the training related to the career education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of career education. The researcher intended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matters to be improved in the career education for the element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demand of inclusive classroom teacher for the career education, etc.

**Key Words :** Inclusiv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reer education.

---

논문 접수: 2018. 11. 12 심사 시작: 2018. 11. 12 게재 확정: 2018. 12. 07